



## “보수는 꿈꾸고 진보는 보살필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기회가 만들어진다”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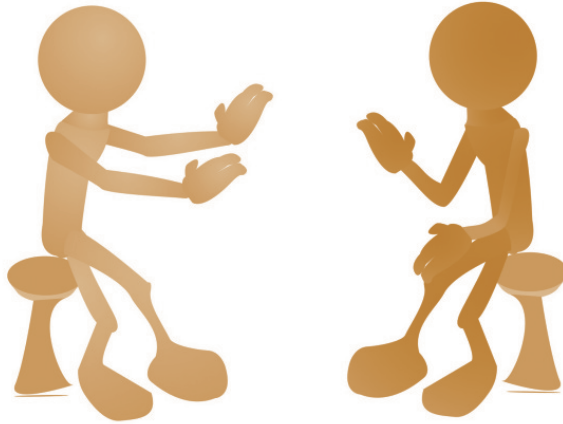
“본인이 웨스트포인트 교정에서 선서한 이후 세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희망과 꿈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병영생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의 후렴인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란 가사를 본인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그 노래의 노병처럼 군인 생활을 접고 사라지려고 합니다. 신(神)이 본인에게 내린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 노병으로서 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차 세계대전에서 극동지역의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고 한국전쟁에서는 UN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1951년 4월 19일 미국 의회의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맥아더는 미국 장성 중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인물이다. 그의 사관학교 학업 성적은 지금도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는 30대의 최연소 육군참모총장이 되기도 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그의 각종 연설문은 처칠이나 드골보다 한 수 높다는 평이다. 1945년 9월 2일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고 행한 연설에서 맥아더는 향후 중대하고 효력 있는 장치(시스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 종말의 결전장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1962년 웨스트포인트에서 ‘의무, 명예, 국가’에 관한 그의 연설은 가장



후쿠시마 참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회적 삶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독(毒)은 일상적 삶의 정상적 특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만에서의 원유 유출 사건이 BP 회사의 퇴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BP만이 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통제력을 보유한 전문가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지구에는 엄청난 사고 사건이 증가했지만 인류 삶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전형적인 웅변의 스타일을 보인다. 그러나 1951년 4월 19일 합동의회 연설에서 맥아더는 위풍당당한 모습이나 장대하고 결단적인 언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전에서 중공군의 개입과 관련된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UN 사령관직에서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공산주의 위협이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백악관의 우유부단한 정책에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 “한국인은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음을 택할 민족”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연설에서 맥아더는 결코 인생의 황혼을 맞아 비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조국’에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는 심정으로 자기의 전략적 생각을

의원들에게 피력한다면서 몇 가지를 상기시켰다.

아시아는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지만 유럽 또한 아시아의 관문이므로 한 곳의 위험은 다른 곳의 위험과 직결된다는 점, 미국의 힘은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을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은 패배주의의 극치라는 점, 공산주의 침략이 한 곳에서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공산주의에 대한 유화정책은 금물이며 아시아가 공산주의자에게 항복하게 되면 유럽을 방위하려는 서방의 노력도 허사가 된다는 점,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 시 만주 폭격을 주장한 맥아더에 반대한 미국 지도자들이 인천상륙작전 계획을 반대했던 경우처럼 또 다시 오판을 하고 있다는 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수단을 사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종결해 승리하는 것이지 전쟁을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공

산주의 중국에 유화정책을 쓰자는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연설의 끝 부분에서 맥아더는 한국인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운 유일한 민족이라며 그들의 용기는 필설로 다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인은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민족이라며 자기가 한국을 떠나올 때 그들이 한 말은 결코 미국이 태평양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 “독(毒)은 일상적 삶의 정상적 특징”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학자라고 평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마키아벨리는 사회적 갈등이 성찰적 지성과 의견의 다양성을 최초로 부정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로운 선택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고민하고, 공화주의자는 시민적 연대감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더 절실하게 요구하며, 급진주의자는 혁명이 아니라 절차에서 해답을 찾고, 보수주의자는 유지가 아니라 개선에서 희망을 찾는 그러한 정치철학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마키아벨리는 보수는 꿈꾸고 진보는 보살필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동시에 힘만이 국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간파해 인민의 무장 필요성을 역설하며 귀족에 의한 원로원이 지배하는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 아니라 인민에 의한 민주적 국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참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회적 삶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독(毒)은 일상적 삶의 정상적

특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만에서의 원유 유출 사건이 BP 회사의 퇴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BP만이 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통제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지구에는 엄청난 사고 사건이 증가했지만 인류 삶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 인문학은 단계적 축소의 효과적 수단

인문학의 중요성이 근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우리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인문학 강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미 1950년대에 영국의 저술가이며 과학자인 스노 박사가 <두 문화> (Two Cultures)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을 역설한 이래 반세기만에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인문학은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 야기된 형이상학적 영역의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이를테면 인문학은 단계적 축소(de-escalation)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와 종교, 또는 과학기술에서 있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단계적 확대는 바로 근본주의와 결정론이 위험천만하게 섞이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사디즘(Sadism)이나 마조히즘(Masochism) 같은 성적 도착증의 배후에는 에로스(Eros)에서 분리된 타나토스(Thanatos)가 있다고 주장했다. 타나토스를 중화하던 에로스가 고갈됨으로써 죽음 충동의 파괴적 힘이 공격적 형태의 성적 도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근대화된 사회에서 로고스(Logos)와 뮈토스(Mythos)는 분리되는 경향이 있음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